

지역 동네서점과 함께하는 '오감만족 인문힐링'

호남·제주 23곳 '인문힐링 북페어' 11일, 아시아문화전당 상상마당 권장도서 전시·공연·체험 등 다채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은 점차 퇴색돼 가고 있다. 야외활동을 하기에 좋은 데다 지역 곳곳에서 축제 등이 열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가을은 책의 계절이며 북페어의 계절이다. 책을 매개로 인문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광주시 동구는 다양한 인문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관점에서 동구가 지닌 인문학적 가능성과 콘텐츠 확장은 무궁무진하다.

인문 정신과 책을 연계한 복합 힐링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광주와 전남, 전북, 제주의 23개 동네서점이 '오감만족 인문 힐링 북페어'를 연다. 오는 11일(오후 1시-6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상상마당 일일.

이번 북페어는 동구문화관광재단(대표 문창현)이 일상에 인문을 느끼게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광주에서는 모두 11개 동네서점이 참여한다. 기억책방, 동명책방 꽃이피다, 라이트라이프, 러브앤프리, 서점서점, 소년의서, 연지책방, 예지책방, 이것은 서점이 아니다, 책과생활, 파종모종 등이다.

전남에서는 담양 수북수북, 목포의 구보책방·책방 풍당풍당·화은당꽃그림책방, 순천 와온책방 등 5곳이며 전북에서는 군산의 벚들러 북 스토어·심리서점 쓰담, 전주 에어커북스토어·책방 토닥토닥 등 4곳이다. 제주에서는 더반·시웃서점·책



지난 9월 광주 동구 푸른길에서 열린 '책과 함께 다니는 가을, 책 소풍' 모습. <동구문화관광재단 제공>

방무사 등 3곳이 참여한다.

지역에서 로컬문화를 가꾸고 있는 이들 동네서점들은 전시 뿐 아니라 책을 주제로 한 북토크, 공연, 체험 등 모두 5개 프로그램을 펼친다.

먼저 인문힐링인 '책으로 Tiki-taka'는 각 서점이 준비한 다양한 책과 독립출판물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힐링 북페어다.

'몸으로 Tiki-taka'는 활력힐링으로 상상마당 휴게존에서 펼쳐진다. 힐링 독서 휴게 공간에서 책을 읽으며 쉬 수 있다.

아트 힐링 코너도 마련돼 있다. '눈으로 Tiki-taka'는 상상마당 전시존에서 '2023 책 읽는 동구 구민 독서 권장도서' 전시를 매개로 책을 발견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귀로 Tiki-taka'는 일명 치유힐링으로 명명된 코너다. 상상마당에서 펼쳐지는 감성 가득한 버스

킹 프로그램으로 팝페라(싱앤싱어즈), 어쿠스틱(봉훈), 시극(담쟁이시낭송문화회), 오키리나(유니버설앙상블), 재즈(Cream)가 펼쳐질 예정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손으로 Tiki-taka' 또한 치유힐링 공간이다. ACC 휴게존 및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음식공방에서 진행되며 '우리가족 다문화 쿠킹레시피북 만들기'를 비롯해 '나의 식물 친구 만들기', '날아라 슈팅 글라이더' 등이 예정돼 있다.

문창현 동구문화관광재단 대표는 "이번 힐링 북페어는 인문도시를 지향하는 광주 동구가 일상에 인문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춘 행사"라며 "책을 매개로 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변화와 행복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91세 시인, 정겨움을 선물하다

진현성 시인, 시전집 제17권 '비짜락' 펴내

"살갓을 태우던 피약별도 이겨내고 맨드라미, 코스모스 곁에 핀 가을입니다. 지난번 넘치지 않은 문인께서 제 16시집 출판기념회를 지극히 화려하고 의미 깊게 열어 주신 것은 시인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첫 번째 출판기념회였기에 큰 감동과 해일 같은 감사함이 마음 깊숙이 적셔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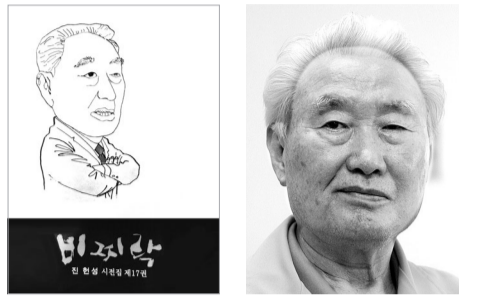
올해 만 91세인 진현성 시인(진내과 원장·사진)이 시전집 제17권 '비짜락'을 펴냈다.

시인은 지금까지 쓴 1만3180수에 이번 작품 61수를 더하면 모두 1만3241수라는 작품을 보유하고 있다. 구순이 넘어서도 끊임없이 시심을 펴내는 노(老) 시인의 열정의 끝은 어디까지 감탄하게 된다.

이번 시집은 제목부터 눈길을 끈다. '빗자루'의 방언(전라)을 뜻하는 '비짜락'은 말맛이라는 정겨움을 선사한다. 물론 그 시어가 함의하는 본질적은 의미는 간단치 않을 것이다.

"먼지가 쓰레기를 쓰는 도구로/ 마당비·방비·물비 등/ 전라도 방언으로 비를 비짜락이라고도// 적막을 쓰는 것만이 울음소리부터, 광야를 쓰는 비바람 소리도 있고/ 마음을 쓰는 하얀가·동안거에 산사의 참선도/ 심지어는 토굴면벽의 고행도 있는가 하면/ 예수의 십자가도 있다"

'비짜락'의 전문을 읽다 보면 '비짜락'의 쓸모가 무한대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부터 종교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소용은 무한대로 넓어진다.



한편으로 화자의 심중에는 시끄럽고 탐욕에 물든 정치판의 오물부터 쓸어내야 하지 않나, 라는 사유 등이 담겨 있는 것도 같다. 혹은 지금까지 살아오며 뇌리에 남은 회오나 회한 같은 일들도 '비짜락'으로 정갈히 쓸고 싶은 것인지 모른다.

시집의 표지 제호 및 내지 제호는 담현 정명옥 서예가의 글이며, 표지 캐리커처는 김종두 화백이 그렸다.

진 시인은 "시인으로 생을 살아가는 동안 곁에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분들이 능소화 피어나듯 떠오른다"며 "두루 찾아 읽고 인사 사드려야 하나 여기서 엮어 변변찮은 시집으로 인사 올린다"고 밝혔다.

한편 진 시인은 1970년 '현대문학'에 김현승 시인의 추천을 받아 등단했다. '물성의 시집' 제1권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시집들을 펴냈으며 광주문학상, 해동문학상, 대한민국향토문학상, 대한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문학적 성취를 일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명가와 월륜 계보 있다

국립남도국악원, 11일 서울경기춤연구회 초청 공연

전통춤의 맥을 잇고 후속세대에게 전승하는 춤연구회의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국립남도국악원은 토요상설 '국악이 좋다' 일환으로 서울경기춤연구회를 초청 '명가월륜(明嘉月輪)'을 11일 선보인다. <사진>

'명가월륜'은 서울경기권 전통춤 선구자 한성준(1874-1942)을 잇는 명가(明嘉) 강선영(1925-2016)과 월륜(月輪) 조흥동(1941-)의 계보를 통해 우리 춤의 매력을 알린다는 데 초점을 뒀다.

강선영의 '승무'를 시작으로 '죽흥무', '한량무' 외에 경기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기검무'도 적벽가와 함께 들을 수 있다.

경기도당단 특별립 장단(10/8박자)에 맞춰 팽과리 연주가 곁들여진 '진쇠춤', 국가무형문화유



산 '태평무'도 이어진다.

'원앙생-꿩'은 '열두무녀도'와 '바라춤', '무당춤'을 재구성한 것으로 산자의 노래이자 염원의 소리, 몸짓이 담겨 있다.

한편 서울경기춤연구회는 전통춤 계승을 위해 만들어진 예술 단체로 무형문화유산 종목을 발굴하고 젊은 예술가들에게 전통춤을 전승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립남도국악원 장악과 관계자는 "우리 고유의 한과 신명을 볼 수 있는 초청공연을 마련했다"며 "진도 읍내와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 등을 제공하고, 12월까지 스탬프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 스토리텔링 경진대회' 참여하세요

광주관광공사, 14일까지 온라인 접수

광주광역시관광공사(사장 김진강·광주관광공사)가 '2023 제1회 광주 스토리텔링 경진대회'를 진행한다.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서류접수.

이번 대회는 광주와 관련된 장소·인물·스토리 중 두 분야 이상을 선택해, 스토리를 가미한 원고를 해설해 제출하면 된다. (1~2p 분량)

광주시 관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지질공원해설사, 각 구청별 해설사를 비롯해 오월지기 등 '해설사'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수상자에게는 광주관광공사장 명의의 상장과 상금 등이 지급된다.

광주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 후 이메일로 제출.

광주관광공사 김복음 프로젝트 매니저는 "우수한 광주의 로컬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스토리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모"라며 "앞으로도 관내에서 '문화해설'을 매개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설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공모행사를 기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문화관광해설사는 우리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전문적인 해설을 도와주는 인적 자원이다. 올해 7월 기준으로 관내에서 총 74명이 활동하고 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